

삼성종합화학(주)

충청남도 서산. 울산, 여천에 이은 제3의 석유화학단지로서 서해안개발을 주도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서해안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으로 동남아 및 대북방 교역의 교두보가 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석유화학제품 해외수출의 첨병 역할을 하고자 1988년 5월 설립한 삼성종합화학을 방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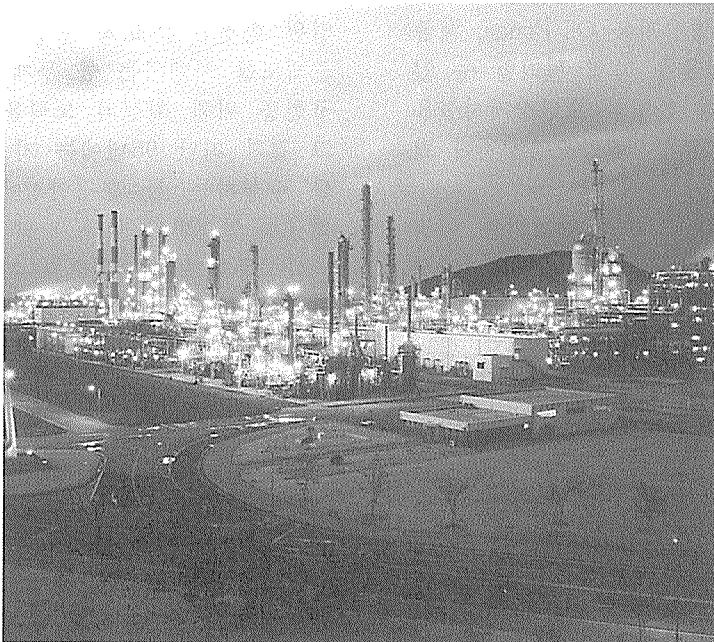
전자, 자동차, 항공, 섬유 등 전 산업분야의 산업용품에서부터 일반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필수적인 기초소재로 공급하는 석유화학산업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종합화학 대산유화단지에서는 에틸렌 등 기초유분에서부터 합성수지 등의 각종 유화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동남아 각국에까지 공급함으로써 국제분업화와 관련산업의 발전을 유도하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 고객을 제일로 하는 경영은 제품생산단계의 품질확보에서

부터 시작된다는 일념하에 전 임직원이 품질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국내유화업계 최초로 합성수지 전공장에 대해 국제품질보증규격인 ISO 9002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생산전과정에 대한 품질관리체계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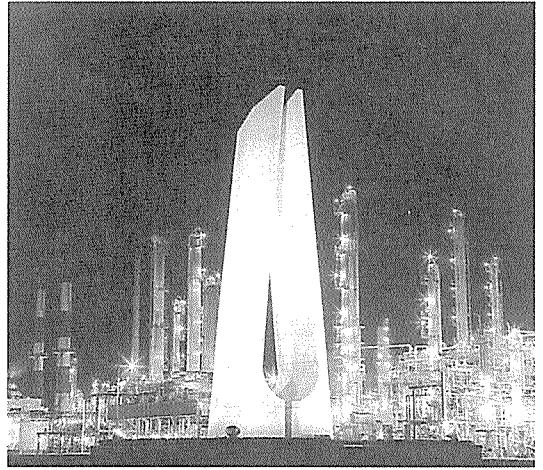
석유화학산업은 정유공장에서 원유를 정제할 때 추출되는 나프타를 주원료로 많은 가공공정을 거쳐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이며, 막대한 자본과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장치산업으로서 장치의 적절한 유지, 보수가 회사 안전안정가동의 핵심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Cs-137의 4종의 방사성동위원소가 식별 합금원소의 정량분석 및 Vessel 내부 유체의 Level 측정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고, 품질관리팀에서는 Quality Control을 위한 중요기기로 XRF를 활용하여 제품의 정성, 정량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X선을 이용한 XRF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공정에서는 최고 품질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운전변수를 변화시키고 첨가제를 추가투입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제품의 품질에서 제일은 물론이고 환경안전부문에서도 초일류를 지향하고 있는 삼성종합화학은 각 단위공장별 분산제어시스템(DCS)과 여러 공정의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자동조절하는 선진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자동화의 최고수준 단계라 할 수 있는 최적화(Optimization)를 이뤄 에너지 절감 및 효율극대화를 도모하였다.



환경오염방지,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사업초기 사업품목의 선정에서부터 환경을 우선적으로 감안한 최신제조공법을 채택하여 공해발생을 원천적으로 방지하였으며, 총 620억원을 투자하여 대기오염 자동 측정장치, 수질오염자동측정장치, 전기집진기, 물리·생물·화학적 처리가 가능한 침단 폐수중 말처리시설, 해양오염방지용 Oil Fence, 폐플라스틱 등 산업폐기물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건류식 소각로 등 완벽한 오염방지시설을 갖추어 대기, 수질, 토양, 해양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폐수처리장에서 최종 수거되는 미생물 슬러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산업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있으며 분해성 플라스틱 등 환경관련 제품과 기술개발에도 힘써 산업발전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의 환경보호 노력은 단지내에서 그치지 않고 사원과 가족들이 중심이 된 자원 재활용 및 물자절약 운동, 1사 1산 1하천 가꾸기 운동, 해양오염방제훈련, 어린이 환경안전교실 운영 등 각종 지역환경보호활

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기업의 사회적 사명을 다하고 있다. 한편 석유화학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을 위하여 종합방재센터를 중심으로 단지내 24시간 자동감시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현장내 잠재재해를 사전에 발굴하기 위한 새로운 무재해추진기법을 개발하여 종업원 환경안전 교육 프로그램인 환경안전인 증제도를 시행하는 등 무재해 Green 사업장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96년에는 가스안전대상(단체)을 수상하는 등 환경안전에서 앞서 나가는 회사로 인정받고 있다.

삼성종합화학은 앞으로 기존 석유화학사업을 바탕으로 고분자복합재료와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등 신소재, 산업·건축용 소재 등 특수수지가공, 정밀화학 등 첨단화학 및 소재 산업분야로 신규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지역환경보호와 재해방지에 앞장서는 삼성종합화학, 장차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종합화학회사가 될것을 기대해 본다.